

##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이 유일하게 수상 강화군, 2023년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대상 '우수 지자체' 선정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사)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주관하는 2023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대상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3 대한민국 노인복지증진대상은 장기요양기관 및 양로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힘쓰고 노인복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상은 전국 13개 지자체(광역 2, 기초 11)가 선정됐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강화군이 유일하게 수상했다.

강화군은 '강화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22년부터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원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노력을 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은 노인 인구가 37%인 초고령 지역으로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지위 향상에 힘써 어르신들이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노인복지시설 지원 우수 자치단체 수상

## 강화군, KTX 용산역에 설맞이 '강화군 우수 농·특산물' 특설매장 운영



KTX, 용산역에 설맞이 강화군 우수 농특산물 특설매장 운영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오는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KTX 용산역 특설매장에서 '강화군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설매장 운영은 농업경영인 강화군연합회, 인천강화옹진축산농협과 함께 진행하며, 지난해 추석맞이 용산역 특별 판매 행사의 호응에 힘입어 우수한 강화군 농특산물을 다시 한번 선보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인천시민들을 위한 「인천e몰」 사이트에서 '강화 농·특산물 온라인 특별 판매'도 함께 진행한다. 강화군은 해풍과 터가 좋은 청정 지

역인 강화에서 생산한 강화섬쌀, 강화섬약쭈, 강화섬약쭈한우 및 강화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용산역을 찾는 서울시민과 귀성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 농·특산물을 믿고 관심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강화의 우수 농특산물을 도시의 소비자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라며, “이번 특별 판매전은 질 좋은 강화군의 농산물을 좀 더 편리하게 접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다시 한번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라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유천호 강화군수, 이천식 신임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간담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5일 2023년 12월 29일자로 신규 취임한 인천해양경찰서장 이천식 총경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유천호 군수와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 이만식 경인북부수협조합장이 참석해 어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 등을 상호 논의했다.

유천호 군수는 하점면 창후항의 노후된 해경 출장소로 인해 주변 경관이 저해되고 있다는 주민 건의 사항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청했다. 창후항은 어촌뉴딜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으로, 어항 기반 시설이 정비되었으나 노후된 해경 출장소로 인해 민원이 잦은 곳이다. 이에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 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유천호 군수, 인천해양경찰서장과 간담회

유천호 군수는 “해양 안전을 위해 애쓰시는 해양경찰관들께 감사드리며, 양 기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식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해 강화군과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 강화군,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 참여 업체 모집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 참여업체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내달 16일까지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한다.

강화군은 지난해 디지털 관광주민 공모사업에 경인지역 대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11개 관광지 및 지역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서 관광지, 여행사, 카페, 체험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되는 업체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과 모바일 앱에서 홍보를 지원받을 수 있다.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관심 증대 및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국관광공사와 강화군이 협업체 추진하고 있다.

강화군을 방문한 관광객이 방문지 내 관광 주민증 QR코드를 스캔 후 디지털 주민증을 발급 받은 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를 방문해 이를 제시하면 가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발급 절차 및 업

체별 혜택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웹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체 모집 관련사항은 ‘강화군 홈페이지>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 관광콘텐츠팀 (☎032-930-356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강화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디지털 관광주민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라며, “볼거리, 즐길거리 가득한 강화군을 많이 방문해 달라”고 말했다.

# 오늘 31일까지 신청... 2천만원 이내 지원 강화군, 노후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보수 비용 지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노후 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2024년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공동(운동) 시설 보수 ▲옥상방수 ▲재해우려가 있는 옹벽·석축 등의 보수·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단, 3년이내 지원받은 단지는 제외된다.

사업비는 공동주택 당 2천만 원까지 전액지원하고, 2천만원 초과 시 산출 기준에 따라 자부담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산정한다.

사업신청은 오늘 31일까지로 신청서, 사업계획서, 현장사진 등을 구비해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주택팀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화군은 신청단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진행 및 공동주택심의위원회를 거쳐 2월 중 대상 주택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동주택\_옥상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관심과 참여로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 소방·전기·가스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 공동계단 물건 적치 금지, 가정 내 전기·가스 등 안전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30일 관내 공동주택인 아파트 6개소에 대해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소방·전기·가스 등 다각적인 점검을 위해 강화소방서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도 참여했으며, 건축물 안전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점검단은 소방설비 정상 작동 및 피난계단 물건 적치 여부 등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방해하는 위험 요소를 중점 점검했다. 또한, 아파트 내 화재 안전 및 대피 관련 국민 행동 요령의 비치 여부, 공동주택 관리자의 비상 방송 체계 등 피난 안전매뉴얼 숙지 상태를 확인한 후에 미부착된 곳에는 시정 조치를 취했다.

군 관계자는 “겨울철 화재 시 대피를 위해 공동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등을 삼가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가정 내 전기·가스 등 안전 점검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최백하 기자



공동주택화재예방점검 현장사진

## 강화군, “31일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세요” 기한 지나면 3% 가산금 추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12,284건, 1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하고 군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을 받은 면허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임대 사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 판매업 등)로,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다.

1월 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되더라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 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



문의 ▶ 강화군 재무과 시세팀 ☎032-930-3309  
납부 ▶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 위택스

# 강화군, 민방위시설 현장점검 실시



민방위시설 현장점검



민방위시설 현장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속되는 남북 관계의 긴장 속 유사시 신속한 상황 전파와 군민 보호를 위해 민방위 시설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민대피시설 85개소, 비상급수시설 12개소, 경보시설 57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읍·면에서 1차 점검 후 군에서 2차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주민대피시설에 대한 비상비품 관리, 시설 내·외부 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며, 급수시설의 양수설비·비상시 전력 가동 사항 및 수질검사 등을 실시한다.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시험 경보발령, 사이렌장비 장애 대비 수동발령, 군부대 직통 전화연결 상태 등을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개선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해 비상상황 발생 시 원활한 대처 및 군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강화군은 접경지역인 만큼 민방위 시설에 대한 점검과 대비가 더욱 필요하다”며, “유사시를 가장해 철저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오는 2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강화군, LPG 용기 고무호스 금속 배관 교체 지원



LPG용기 고무호스 금속 배관 교체 지원(교체 전)



LPG용기 고무호스 금속 배관 교체 지원(교체 후)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가스 사고에 취약한 LPG용기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는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LPG용기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주택으로, 오는 2월 2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

청하면 된다.

LPG 고무호스는 절단이 용이하고 쉽게 노후화돼 가스 누출 등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고무호스를 사용하는 주택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 배관으로 의무 교

체해야 한다.

군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3년까지 3,459 가구에 금속 배관 교체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지난해 실시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200가구에 무상으로 금속 배관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LPG 용기 금속 배관 교체 사업으로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스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을 위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 강화군, 농지 불법 성토, 감시단 운영



농지 불법 감시단 현장점검



농지 불법 감시단 현장점검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농한기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보전을 위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시단은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하며, 농지 성토와 관련한 뽕흙, 골재, 순환 토사 매립 사항 및 배수불량, 인근 농지 피해 유발 사항 등을 감시하고 불법 사항 발견 시 농정과에 즉시 신고한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매립업체는 토지주에게 “좋은 흙을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며 접근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오니, 또는 해안가 지역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뽕흙 등으로 불법 매립한다.

이로 인해 농지의 토양과 수질 등에 각종 오염 뿐 아니라 인근 농지에 배수 피해, 토사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강화군은 지난해 12월부터 감시단 운영을 시작해오고 있으며, 12월 한 달 동안 행정조치 14건, 현장 계도 31건, 현장 순찰 66건 총 111건의 농지 성토를 감시하며, 농지 불법 성토에 대해 경각심을 심어줬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결국 행위자인 농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 매립업자가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를 바라며, 성토 시에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강화군보건소, '찾아가는 한방 가정방문' 운영



강화군보건소 한방가정방문사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가정방문'을 운영하고 있다.

대상자는 거동불편노인 및 장애인, 만성질환 위험군 어르신 등 200명이며, 주 1회씩 5번에 걸쳐 공중보건한의사와 담당자가 해당 가정에 방문해 침, 뜸, 한방엑스산체 처방 등의 한의약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관절구축과 자세불균형 등으로 발생하는 통증을 완화하고, 자가

질한 관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이나 만성퇴행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아파도 병원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번 서비스가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방가정방문은 강화군보건소 및 각 보건지소에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최벽하 기자

2025년도  
**산림소득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접수기간 2024.1.29.(월) ~ 2024. 2. 20.(화)
- 접수장소 강화군청 산림공원과  
\*문의사항 : 032-930-3876
- 신청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지원대상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강화군

친환경목재이용으로  
환경을 지켜요!

강화군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신청**

신청기간 : ~ 2024. 2. 20.까지  
대상 : 강화군민(건축물대장)

문의사항 : 032-930-3876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32-930-4034

# 강화군, 강화섬오이 고소득 작물 연중 생산 육성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오이정식

강화군(군수 유천호) 불은면 소재 가온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지난 20일 시설오이를 첫 정식하며 연중 생산 육성을 시작하였다.

강화군 특화 소득작목인 시설오이 재배면적은 22ha로 강화군 시설 재배 면적의 16%를 차지한다. 현재 총 100여 농가가 다다기오이를 재배하고 있으며, 1월 중순부터 3월까지 시기별로 정식한다.

농촌진흥청의 2022년 농산물 소득 조사에 의하면 1기작 기준 연간 고소득 시설 재배 작목으로는 토마토와 딸기, 오이, 가지, 파프리카 등이 올랐다. 오이(축성) 재배는 1기작 기준 10a당 연간 소득이 18,028천 원이었는데 2기작의 경우 실제 소득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 이상으로

적절한 섭취 시 온도 조절 및 노폐물, 영양분의 이동과 같은 신진대사에 도움을 준다. 또한, 조미 없이도 간편하게 생으로 먹을 수 있어 꾸준한 소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체로 노지 작목은 소득이 낮고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반면, 시설 축성재배 오이 농가의 경우 1기작 시 3.3㎡당 5만 원~ 6만 원 정도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겨울철 불리한 기상 조건과 가온 시설 투자비, 난방유류비 부담 등으로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강화군은 연동비닐하우스 및 다검보온커튼, 국부냉난방시설 등을 지원해 연중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온기 폭염 피해 최소화 시설, 시설원에 편의 장비 지원 등의 신규 사업으로 안정적인 작물 생산을 도모하고 농업인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2024년도 첨단농업 분야 예산으로 25억 원을 수립했으며,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문의 ▶ 강화군농업기술센터  
첨단농업팀  
☎ 032-930-4180

## 개량물꼬, 이양기 육묘상자,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 강화군, 농업보조사업 2월 23일까지 신청하세요!



개량물꼬 지원 사업



이양기 육묘상자 지원 사업



못자리용 인공상토 지원 사업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개량물꼬, 이양기 육묘상자, 못자

리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사업비 약 17억 원을 투입해 못자리용 인공상토와 개량물꼬는 구입

금액의 80%, 이양기 육묘상자는 구입 금액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의 시기성과 유사성을 감안해 신청받아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인공상토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인천광역시 내에 주소지를 둔 관내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으로, 지원기준은 1ha당 65포(20기준), 32포(40기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양기 육묘상자와 개량물꼬의 경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벼를 재배하는 농업(법)인이

다. 지원기준은 육묘상자 1ha당 300개 기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개량물꼬는 1필지당 1조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신청서 접수 후 기본형공익직불제, 농지대장, 농지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검토해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하고 3월 중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업지원 사업이 우량묘를 생산하고 농업 경영비 절감에 일조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이번 윈스톱 신청과 같은 농업인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 선원면, 이웃사랑 전달 및 방문 돌봄 화도면, 2024 달라지는 군정시책 홍보



강화군 선원면(면장 서광석)이 지난 12일 새해를 맞아 취약계층에 위문품을 전달했다. 서광석 면장이 홀몸 어르신 가구를 방문해 온정 가득한 위문품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으며 돌봄의 시간을 가졌다.

수혜자 전 모 어르신은 “유난히 추운 요즘 직접 위문품을 전달해 주시니

마음이 따뜻해진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에 서광석 면장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이웃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돌봄 활동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없이 다 함께 행복한 선원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강화군 화도면(면장 박수연)이 지난 12일 관내 기관·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군정시책을 홍보했다.

이에 인천시 최초로 강화군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무상 교통 추진을 적극 홍보했으며, 상방 면 단위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 동막해수욕장 및 동막리 일원 인도 건설 등 화도면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군정시책 위주로

설명을 진행했다.

조휘명 노인회장은 “역점 사업들을 한눈에 익힐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천호 군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박수연 화도면장은 “청룡의 해가 시작된 만큼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군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 강화군, 왕골 공예도 배우고! 전통도 알리고! 오는 24일까지 '2024 왕골공예 취미교양교육' 수강생 모집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오는 24일까지 화문석문화관에서 '2024 왕골공예 취미교양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2024 왕골공예 취미교양교육'은 강화 고유 특산품인 왕골 공예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인들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수강료는 무료로 강화군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뉘어 수강생이 직접 왕골을 통해 공예품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교육은 오는 2월 2일~12월 15일까지 약 11개월 동안 이어지며, 수강 시간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주 2회) 오전 10시~12까지이다. 단, 수강 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된다.

논에서 해풍을 맞으며 벼와 함께 자란 왕골은 순백색 기질이 살아 있어 기품 있는 화문석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군 관계자는 “강화의 전통문화인 왕골을 더욱 널리 알리고 문화소외계층의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왕골공예 취미교양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이 새로운 역량을 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최벽하 기자

## 양사면 노인회, 경로당 순회 점검, 안전한 겨울나기



양사면 노인회 안전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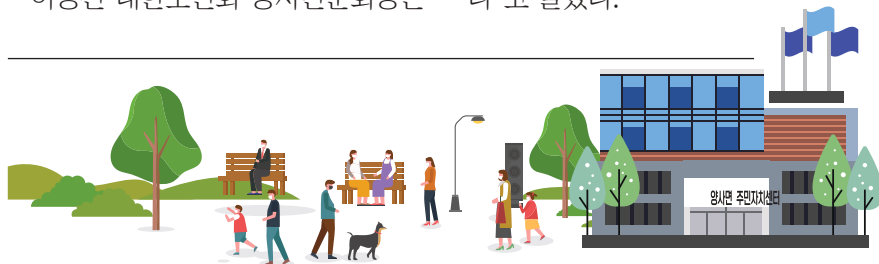
강화군 양사면(면장 이지영)이 지난 10일 대한노인회 양사면분회(분회장 이경진)와 안전 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에 각 리 경로당을 순회하며 난방 시설과 수도시설 동파 여부 등을 점검하고, 겨울철 건강 수칙 및 대설·한파 시 행동 요령을 안내했다. 또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물으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진 대한노인회 양사면분회장은

“경로당에 모여 면장님과 함께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다”면서 “행동 요령을 숙지해 안전하고 건강한 한 해 보내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지영 양사면장은 “짙은 한파와 폭설로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실 어르신들이 걱정됐는데, 경로당 안전 점검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안전한 양사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양사면, 주민복지공간 주민자치센터 신축사업 설계공모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오는 3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양사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따른 설계공모를 추진한다.

양사면 주민자치센터는 사업비 약 92억 원을 투입해 양사면 교산리 86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센터에는 다목적 사무실, 북 카페, 체력단련실, 회의실, 동아리실, 대강당 등이 들어서며, 외부에는 주민쉼터도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공모 마감 후 설계공모 심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에 당선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민자치센터 이전 신축으로 양사면 주민들의 행정 이용의 편의성 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화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 문화복지의 질적 향상과 지역여건 개선 및 공동체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종이컵 NO! 개인 머그컵 OK! 선원면, 쓰레기 감량화 위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강화군 선원면(면장 서광석)이 친환경 자원순환청사 조성 및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선원면 이장단 전용 머그컵을 제작했다. 앞으로 이장회의 시 자체 제작한 머그컵을 사용해 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선원면 각 리

이장들 역시 마을 경로당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해 1회용품 줄이기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에 서광석 면장은 “환경보호에 앞장서주시는 이장단에 감사드리며,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깨끗한 선원면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선원면 이장단 머그컵 제작

## 길상면 이장단, 청룡의 기운으로 새롭게!

### 2024년 새해 첫 이장회의 개최

강화군 길상면 이장단(단장 심장섭)이 지난 11일 갑진년 새해 첫 이장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새로 취임하는 이장 네 명이 주민을 위한 힘찬 다짐을 밝혔으며, 동료 이장들이 그에 화답하며 회의가 시작됐다. 이어서, 새로 시작되는 사업 및 달라지는 제도 등 주민 홍보 사항을 전달했다.

심장섭 이장단장은 “신임 이장님들을 환영하며, 올해도 15개 리 이장 모두가 길상면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구 길상면장 역시 면정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이장님들께 인사를 전하며 “건강하고 활기차게 2024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강화소방서, 아파트 화재 대비 ‘불나면 살피서 대피’ 캠페인

인천강화소방서(서장 박성석)는 31일 아파트 화재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화풍물시장에서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출근시간대에 이

뤄졌다.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피난행동요령 안내 및 전단지 배부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홍보 ▲‘불나면 살피서 대피’ 슬로건 홍보 ▲아파트 관리자

피난행동요령 교육 등이다.

박성석 서장은 “아파트 화재는 대형 재난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 과제”라며 “화재 예방과 올바른 대피법을 숙지해 인명·재산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 서정진 기자



# 인천에서 강남까지 30분 … GTX-D(Y)·E 인천 출발

국토부, ‘교통분야 3대 혁신전략’에 선정 … 강남은 물론 강북까지 GTX 연결  
검단·청라 30분, 영종 40분 시대 개막 … 유정복 시장, “인천 철도망 획기적 개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과 GTX-E 노선이 모두 인천에서 출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25일 인천 검단-계양과 인천 공항~청라~가정을 지나 서울 강남(삼성)을 잇는 GTX-D Y자 노선과 인천공항~청라~대장~남양주를 잇는 GTX-E 노선을 확정해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GTX 확충을 포함한 ‘국토교통부 3대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해, 1월 2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모든 인천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GTX-D 노선은 ‘인천공항~청라~가정’과 ‘김포~검단~계양노선’이 대장~삼성으로 만나 하남시와 여주시 두 갈래로 운행하는 Y자 노선이고, GTX-E

노선은 GTX-D 노선과 같이 ‘인천공항~청라~가정~대장’을 거쳐 남양주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다.

특히 GTX-D가 개통되면 검단·청라에서 삼성까지 약 30분, 영종에서 삼성까지 약 40분이면 출퇴근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기존에 대략 2시간 걸리던 것에서 약 1시간 30분 가량 단축되는 교통망이 구축되는 셈이다.

처음부터 GTX-D 노선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Y자 노선으로 검토됐던 것은 아니다. 당초 GTX-D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김포~장지역~부천종합운동장, 21.1km)만 반영됐었다. 그러나 유정복 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을 필두로 약 2만 리(약 7,854km)를 넘나들며 각 정부 부처, 국회 등 관련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거치는 등 Y자 노선과 GTX-E 노선이 최종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로 뛰었다. 또한 지난 2022년에는 인천시민연합 주관으로 개최한 ‘GTX-D Y자 유치 챌린지’에는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민, 지역 국회의원 등 1만여 명이 선정 의지에 힘을 더하기도 했다.

앞으로 인천시는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내년 하반기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과 현 정부 임기 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서울9호선의 인천공항 직결, 이달 19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서울5호선 검단 연장 조정(안) 발표에 이은 것으로 인천 서북부 지역의 철도망에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수도권 동서축을 잇는 GTX 노선 확충은 인천시민들에게 절실했을 뿐만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세계 3대 공항 도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했다”며 “민선 6기 시절, 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는 ‘all-ways Incheon’을 도시 브랜드로 정했는데, 이번 노선 결정으로 다시 한번 모든 길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또 세계에서 인천으로 연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바라보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시민과의 약속인 사통팔달 철도망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



인천강화경찰서(총경 남규희)는 15일부터 이륜차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이후 이륜차 사망사고 발생과 사용신고

증가로 인해 이륜차 집중단속 및 홍보를 통해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를 정착시키고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강화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오토바이 배달 업체에 진출하여 경찰서장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이륜차 안전운행 문화 확산 및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법규위반 이륜차의 단속을 위해 오토바이 뒷번호판을 찍는 카메라를 설치하여 폭주행위 등 난폭운전을 일삼는 운전자를 단속할 계획이며 또한 교통안전공단 및 강화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 불법구조 변경 및 소음유발 이륜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남규희 강화경찰서장은 “이륜차는 속도위반율이 일반차량보다 많고 또한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로 연결된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안전운행 문화를 확산시켜 사망사고가 없는 강화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정진 기자

## 기고

이경수

## 거란의 침략과 서희의 외교 담판



고려 태조·현종·문종·원종과 서희 등 충신들을 모신 송의전(경기 연천)

《고려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란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낙타 50필을 보냈다. 왕은 거란이 일찍이 발해와 계속 화목하다가 갑자기 의심을 일으켜 맹약을 어기고 멸망시켰으니, 이는 매우 무도(無道)하여 친선 관계를 맺을 이웃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교류를 끊고 사신 30인을 섬으로 유배 보냈으며, 낙타는 만부교 아래 매어두니 모두 굶어 죽었다.

태조 왕건 때인 942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란(契丹)’은 종족의 명칭이면서 나라 이름이기도 해요. 왕건 재위기에 이미 거란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고려와 잘 지내자며 낙타를 선물했는데, 왕건이 굶겨 죽이고 사신들을 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거란을 향한 고려의 시선이 굵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율아보기가 907년에 거란 부족을 통합하여 나라를 세우고 916년에 황제를 칭합니다. 왕건이 918년에 고려를 세우고 936년에 후삼국을 통일합니다. 그러니까 거란이 고려보다 조금 앞서 건국된 것입니다.

만부교 아래 묶여 있던 낙타들이 죽고 50년쯤 지난 993년(성종 12), 거란이 고려를 침공합니다. 제1차 침략입니다. 소손녕이 이끄는 수십만의 침략군을 고려는 제대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성종이 직접 평양에 가서 군사들을 독려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조정은 대책을 논의합니다. 긴박합니다.

평양 이북의 땅을 거란에 떼어주고 철군을 요청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느니 일부를 내주고 다음을 기약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희(徐熙, 942~998)가 강하게 반대하

고 나섰습니다. 결국, 서희가 소손녕과 담판을 지으려고 적진으로 가게 됩니다. 말 그대로 호랑이 굴입니다.

소손녕은 서희를 바로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내걸었어요. 무슨 조건을 내건 것인지 《고려사》를 풀어가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손녕이 말하기를, “내가 큰 나라의 높은 사람이니, 〈네가〉 마땅히 뜰에서 절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서희가 말하기를, “신하가 임금에게 절을 올리는 것은 예의지만, 두 나라의 신하가 서로 만나는데 어찌 이처럼 할 수 있겠소?”라고 하였다. 두세 번 〈절충하려〉 왔다 갔다 했지만, 소손녕은 허락하지 않았다.

소손녕은 처음부터 서희의 기를 꺾을 생각이었습니다. 서희에게 저 아래 뜰에서 절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야 대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희가 같은 신하끼리 무슨 절을 하느냐며 거부했네요. 소손녕은 자기한테 절을 해야만 회담하겠다고 뜻을 박았습니다.

어떠세요, 소손녕이 대화의 전제로 요구한 게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죠?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그까짓 절 한번 못해주겠습니까. 회군을 요청하려고 간 건데 열 번이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서희는 거부했습니다. 소손녕이 대화에 응하지 않자, 서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서희가 노하여 돌아와 관사에 드러누운 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에, 이게 웬일인가요. 수십만 적군 속으로 흘

로 들어간 서희, 완전 똥배짱입니다. 소손녕이 만나주지 않자, ‘에이씨, 나도 너 안 만나.’ 그리고 나와 관사에 누워버린 겁니다. 도대체 누구 처지가 급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소손녕의 반응을 보아야지요.

소손녕은 마음속으로 그를 기이하게 여기고 마침내 허락하여 마루로 올라와 〈대등하게〉 예를 행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서희와 소손녕이 대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개 서희의 담판 내용과 과정 그리고 강동 6주 획득이라는 결과에 주목합니다. 하지만 저는 회담 전에 벌어진 기 싸움을 더 흥미롭게 여깁니다.

관사에 누워버린 서희, ‘끝내, 소손녕이 대화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속으로는 초조했을 겁니다. ‘내 생각이, 내 계산이 맞는 걸까?’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소손녕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손녕이 절할 필요 없으니 그냥 대화하자고 했을 땐 “앗싸!”하며 제 무릎을 쳤을 겁니다. 기선제압에 성공한 서희는 이제 담판을 통해 적군을 물러가게 합니다.

서희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배짱을 부렸던 걸까요?

거란이 꼭 차지하려고 하는 곳은 고려가 아니라 송나라입니다. 그런데 고려를 먼저 친 것은 뒤통수를 맞을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입니다. 거란은 자기들이 송을 공격할 때 고려가 자기 나라의 본거지로 쳐들어올까, 우려했습니다. 앞에서 송나라가 반격하고 뒤에서 고려가 공격한다면 큰 위기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거란(요) 최대 영역(연두색) - 지도 출처:나무위키

그래서 대병력으로 고려를 위협하고 굴복시켜서, 자기들이 송을 칠 때, 고려가 암전히 있게 하려고 한 겁니다. 가능하다면, 고려와 송의 외교 관계까지 끊어 놓으려고 고려를 침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란은 고려 땅에서 장기전을 펼칠 의도가 없었습니다. 가급적 빨리, 군사 손실을 최소화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송나라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란의 속내를 정확히 읽고 대응했던 인물이 바로 서희입니다. 관사에 누운 자신에게 소손녕이 먼저 대화를 요청해오자, '역시나, 너희가 꽤 급하구나.'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외교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국의 속마음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제 서희와 소손녕의 담판 내용을 들여다봅시다.

소손녕이 서희에게 말하기를, "너희 나라는 신라 땅에서 일어났고, 고구려 땅은 우리 소유인데, 너희들이 침범해 왔다. ... 서희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가 바로 고구려의 옛 땅이기 때문에, 국호를 고려라 하고 평양에 도읍하였다. 만일 국경 문제를 논한다면, 요(遼)의 동경도 모조리 우리 땅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침범해 왔다고 말하는가?"

소손녕은 고려가 신라를 계승한 나라이고 거란은 고구려 땅에서 일어난 나라로 옛 고구려 땅은 모두 거란 땅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러자 서희가 고려야말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이며 나라 이름 '고려'가 이를 증명한다고 맞섰습니다. 오히려 옛 고구려 땅이 고려의 영토이기에 지금 거란(요나라)의 중심지도 고려 땅이 될 수 있다는 듯 밀어붙였습니다. '고구려 얘기를 괜히 꺼냈네.' 소손녕이 속으로 후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서희가 고구려 도읍이었던 평양을 고려의 도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려의 도읍은 개성(개경)인데 말입니다. 이는 평양을 도읍만큼이나 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고려에서 평양을 서쪽 도읍, 즉 서경(西京)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사내의 대화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희가 비장의 카드를 꺼냅니다.

"압록강 안팎 또한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그 땅

을 훔쳐 살면서 완악하고 교활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길을 막고 있으니, <거란으로 가는 것은> 바다를 건너기보다 더 어렵다. 그동안 사신을 교류하지 못했던 것은 여진 때문이니, 만약 여진을 쫓아내고 우리의 옛 영토를 돌려주어 성과 보루를 쌓고 도로를 통하게 해준다면, 어찌 감히 국교를 맺고 교류하지 않겠는가? 장군께서 만일 나의 말을 천자에게 전달해 준다면, 어찌 <천자에게서> 애절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고려가 거란과 교류하지 않은 것은 여진족이 거란으로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그 지역은 옛 고구려 땅이다, 그 땅을 우리 고려에 돌려주면 여진을 내몰고 길을 열어 당신네 거란과 교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란이 원하던 바를 서희가 콕 짚어 말한 것입니다.

해당 지역은 압록강 아래 지금의 평안북도인데요, 당시의 이 지역을 어느 나라 땅으로 보아야 하는지 역사학자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여진인들이 주로 살고 있으나 거란의 영역이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거란은 서희의 뜻에 따라 고려에 땅을 내주고 철수합니다. 이렇게 거란의 1차 침략이 종결됩니다. 거란이 바보짓을 한 게 아닙니다. 더 이상의 군사 피해 없이, 시간 소모 없이, 자기네 뜻을 충분히 이루었으니까요. 고려와 거란이 같이 '원원'한 것입니다. 소손녕은 얼마나 좋았던지, 떠나면서 서희에게 낙타 열 마리, 말 백 마리, 양 천 마리, 비단 오백 필을 선물로 주고 갔습니다.

고려는 일단 거란과의 약속을 지켜서 회복한 지역의 여진인을 몰아내고 강동 6주(홍화, 웅주, 철주, 통주, 곽주, 귀주)를 설치하고 성을 쌓고 거란으로 가는 길을 엽니다. 그 길로 양국의 사신이 안전하게 오가게 됩니다. 나중에 거란군이 송나라로 대군을 몰아 쳐들어갈 때, 고려는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편, 거란과 교류하겠다는 고려의 약속은 송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입니다. 실제로 고려는 거란과 손잡으면서 송나라와 절교했습니다.



서희 표준영정

원욱을 송에 보내 군사를 빌려 작년 <거란과의> 전역(戰役)에 대하여 보복할 계획을 알렸다. 송은 북방 국경이 겨우 편안해졌는데 <군사를> 가벼이 움직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다만 후한 예(禮)만 보이고 돌려보냈다. 이때부터 송과의 외교관계를 끊었다.

거란의 1차 침략 다음 해인 994년(성종 13)에 고려 성종은 원욱을 송나라에 보내서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거란으로 쳐들어갈 거니까 원군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송나라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성종은 송나라와의 관계를 정리해버렸습니다.

'작전'일 가능성이 큼니다. 절교 선언의 명분이 필요했을 겁니다. 고려가 진짜로 거란을 침공하려고 했을까? 아닐 겁니다. 송나라가 군대를 보내줄 리 없다고 여기고 일부러 그런 요청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려의 외교는 치밀했습니다. 의리, 체면 이런 것 보다는 국익, 현실적인 이익을 중시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대몽항쟁기에도 물론 그렇게 했습니다. 고려의 또 다른 힘입니다.

# 호모 사피엔스



김 학 준  
전) 서울신문 기자

인류(인간)이 언제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먹고 즐기고, 타인과 경쟁하는데 바빠서, 인류사가 너무 복잡하고 고루하다는 이유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드물다.

또한 고고학자와 인류학자 등이나 탐구해야 할 사안으로 치부하는 경향도 있다. 그래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 누군가 묻는다면 대충이라도 답변해줄 지식을 갖춘 사람이 거의 없다. 하지만 험준하고 곡절이 많았던 인류의 과거를 안다는 것은 현재의 소중함에 고마움을 느끼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번쯤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전세계에 살고 있는 80억명의 인간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호모 사피엔스'로 불리는 현생 인류다. 그러나 과거 지구에는 현생 인류 말고도 적어도 24종의 인류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그들을 '원시 인류'라 부른다. 원시 인류는 살을 찌르는 추위에서 살아남았고 혹독한 기아, 맹수의 공격도 견뎌냈다. 그럼에도 결국은 모두 멸종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다.

원시 인류가 처음 등장한 것은 300만년 전후다. 최초의 인류는 '오르트랄 로피테쿠스'라고 불리는데, 주변에서 자라는 식물과 동물이 먹다 남긴 찌꺼기를 먹으면서 작은 무리를 이뤄 생활했다. 들짐승 사냥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무기가 없어 실패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다에서 조개를 줍거나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도 이 시대의 중요한 경제활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먹을거리를 구할 때 맨손보다 돌을 날카롭게 다듬어 이사하는 것이 편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류가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다. 도구는 인류의 생활을 확 바꾸어 놓았다. 점점 복잡한 도구를 만들고 이용하면서 손재주가 좋아지고 두뇌도 발달했다. 그 덕분에 인류는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게 됐다. 24종에 달하는 원시 인류는 대개 빙하기(5번에 걸쳐 발생)를 견디지 못하고 멸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시 인류 중에서 가장 나중에 멸종한 것은 호모 에렉투스와 네안데르탈인이다. 호모 에

렉투스의 키는 1.4~1.8m 정도로 그 이전 종인 호모 하빌리스보다 커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와 비슷한 크기였다. 초기 10만년은 아프리카에서 살았으나 180만년 전에 아프리카를 벗어나 유럽과 아시아로 퍼져 나갔다. 마침 아프리카 대륙과 유라시아 사이에 있는 바다(홍해) 해수면이 낮아져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던 것도 에렉투스가 아프리카를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불을 처음으로 사용한 인류로, 10만년 전에 멸종했다.

독일의 네안데르탈 계곡의 동굴에서 발견된 원시 인류를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한다. 30만년 전부터 유럽과 그 부근에서 살았으며, 2만8000년 전에 멸종했다. 네안데르탈인은 키가 작고 힘이 세었다. 노천에 주거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동굴에서 살았다. 시체를 매장했으며 병에 걸린 동료를 오랫동안 보살피주었다.

이들은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 조상과 유전자가 유사한 흔적이 있으나,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을 한 결과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네안데르탈인의 멸종 원인에 대해 빙하기 적응 실패, 호모 사피엔스와의 경쟁에서 패배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 논쟁 중이다.

드디어 지금의 현생 인류(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하는데, 기원지는 역시 아프리카다. 20만년 전에 등장한 사피엔스는 원시 인류들과는 완전히 달랐다. 다른 어떤 생명체도 누리지 못한 거대한 운동장을 갖게 되면서 체계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농업을 시작했으며 산업·과학혁명을 일으켰다. 원시 인류들은 자신들의 후손이 달 위를 걷고 원자를 쪼개고 유전자 코드를 해독하며, 인공지능을 개발하리라고는 꿈조차 꾸지 못했을 것이다. 원시 인류와는 '두뇌'가 갖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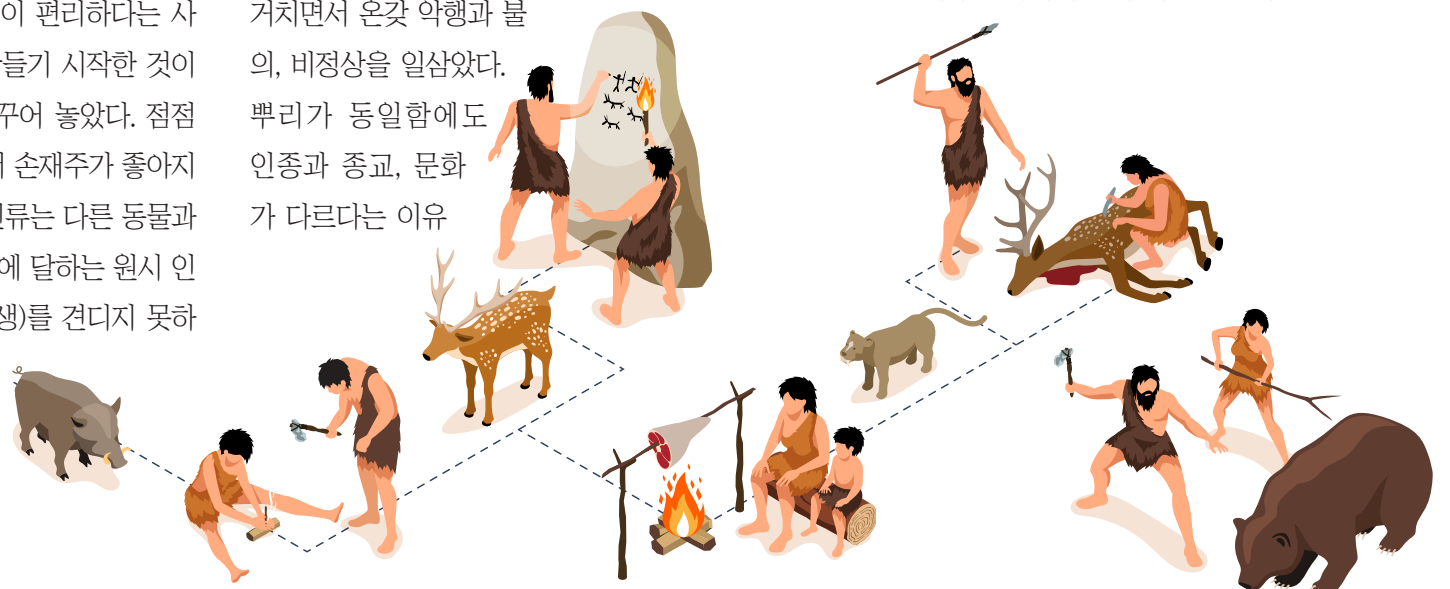
하지만 대가는 심각했다.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과는 달리 고대, 중세, 근대를 거치면서 온갖 악행과 불의, 비정상을 일삼았다. 뿌리가 동일함에도 인종과 종교, 문화가 다르다는 이유

로 상대를 핍박하는 것으로 모자라 대학살과 테러를 거침없이 저지르는 것이 오늘의 인간이다. 특히 '우리가 믿는 신만이 진짜'라는 유일신 사상은 다른 종교에 대한 배타성을 넘어 박멸을 시도했다. 현생 인류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문화를 이룩했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문화라는 근거는 없다. 또 과학을 지니고 있는 자는 지배자가 되고, 과학에 무지한 자들은 피지배자가 되는 무자비한 공식을 만든 것도 호모 사피엔스다.

원시 인류는 생존을 위해 먹이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정도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살벌하기 그지없다. 추위와 굶주림을 면하는 것이 유일한 과제였던 원시 인류와는 달리 물질적 풍요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힘에 겨워서일까. 현재는 서로 핵무기를 이고 다니면서 인류 공멸을 일으킬 수 있는 핵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용맹까지 과시한다. 역사를 끝낼 능력까지 가진 사람들의 정신분열증이다. 원시 인류가 이를 본다면 "그럴라고 진화한 것이냐"라고 비웃을 것이다.

기술과 문명이 반드시 행복을 주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설사 인류가 행복하다 하더라도 인간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과연 맞을 것인가. 많은 동물들이 실험용 또는 보신용으로 죽임을 당했다. 그 잔인성은 지구라는 행성의 그 어디에도 전대미문이다. 또 자연 파괴는 얼마나 심각한가. 코로나와 지구 온난화가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아직도 모른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의심해봐야 한다. 책임감은 별로 없이 안락과 편리함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 이게 수많은 인류 종 가운데 유일하게 살아남은 호모 사피엔스다.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인간은 새로운 힘을 얻는 데는 극단적으로 유능하지만 이같은 힘을 더 큰 행복으로 전환하는 데는 미숙하다"면서 "우리가 전보다 훨씬 큰 행복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다.



# 이웃사랑 릴레이 성금 기탁 2024년에도 이어져



강화군 외식업지부 성금기탁식



불은면 사랑방 모임 성금기탁



송해면 성금기탁



양사면 이웃성금 기탁



교동면 새마을부녀회 이웃돕기



화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이웃돕기



내가면 외포1리 주민 쌀 기탁



화도면 이장단 후원 약정식

## 하점면 주민자치위원회, 설 명절맞이 떡국떡 나눔



하점면 주민자치위원회 떡국떡 나눔

강화군 하점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서근유)에서 지난 23일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관내에 계시는 독거노인 및 저소득 100가구에 떡국떡을 전달했다.

이날 서근유 위원장은 “설을 앞두고 주변의 관심에서 소홀해지기 쉬운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기 바라며 떡국떡을 준비했다. 작은 나눔이지만

모두가 건강하고 따뜻한 설을 맞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상 하점면장은 “추운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써주시는 주민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하점면도 소외계층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기자

# 교동면 대룡철물카페, 농기구 200여 점 기탁



교동면 농기구 기탁

강화군 교동면 대룡철물카페(대표 한호섭·황은희)가 지난 11일 교동면 환경 정비 사업을 위한 삽과 개량괘이, 너가래 등의 농기구 200여 점을 교동면사무소에 기탁했다.

평소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꾸준히 현금 기부 등을 해온 대룡철물카페

는 “지금의 카페가 철물점으로 운영할 당시 판매했던 농기구들을 교동면 발전을 위해 기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조현미 교동면장은 “면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살기 좋은 교동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길상면 난타 동아리, 연이은 이웃 돕기 성금 기탁



길상면난타동아리 이웃돕기성금

강화군 길상면 난타 동아리(회장 공병환)가 지난 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인천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 상금 50만 원 전액을 기탁했다.

길상면 난타 동아리는 지난해 10월 열린 강화군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받은 상금 100

만 원 역시 강화군에 기탁한 바 있다.

공병환 동아리 회장은 “상금 기탁으로 많은 분들과 기쁨을 나눌 수 있어 더욱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재구 길상면장은 “흔쾌히 성금을 기탁해 주신 길상면 난타 동아리에 감사드리며, 모두가 행복한 길상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화도면, 따뜻하고 안전한 경로당으로 오세요!



화도면 경로당 순회방문

강화군 화도면(면장 박수연)이 지난 12일부터 관내 경로당 24개소를 순회 방문하며 군정 추진 사항을 홍보했다.

특히 홀몸 어르신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민원기동반 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로당 이용에 애로사항이 없는지 등을 청취했다.

마을 어르신은 “바쁜 일정에도 수시로 경로당을 방문해 안부를 물어주는

화도면장에게 고맙다”면서 “덕분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박수연 면장은 “연일 추워지는 날씨에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아울러, 마을 경로당이 한파 쉼터로서 어르신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글로벌셀러 성공을 위한 이베이 심화교육 참여자모집

**모집기간**  
2024.1.16(화) ~ 1.26(금)

**접수방법**  
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신청, 방문신청  
<http://www.ganghwojob.kr>

**모집대상**  
이베이 심화교육이 필요한 강화군민  
12명 내외 모집

**교육내용**  
이베이 판매전략 및 상품소싱  
실전 마케팅 중심의 심화교육 등

**교육기간**  
2024. 2. 6(화) ~ 2024. 2. 28(수)  
매주 화,수요일 총 8회 교육

**참여자혜택**  
해외배송비 지원

문의:상담 | 강화군 창업지원센터 032-934-3088

### 건강을 나누는 삶



글·그림 나영식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무료함을 극복하고 손동작, 지남력유지로 치매예방을 하기 위해서 글쓰기와 그림그리기를 시작하신 불은면 고능로에 거주하시는 82세 나영식님이 소박한 삶을

그린 그림이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따뜻함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나영식님은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인일자리를 지원을 통해 일을 하시면서 일에 대한 보람을 간직하며 삶을 사시고 계시는 건강한 자부심을 보여 주신다.



(삼상에 공작새 한쌍)

공작새 한쌍이 사랑을 속삭이고 있습니다 마주보며 사랑의 빠진 공작새 보기에요 아름답군요 하나씩 껴서도 서로 사랑 하라고 말씀 하셨 습니다



(산골 초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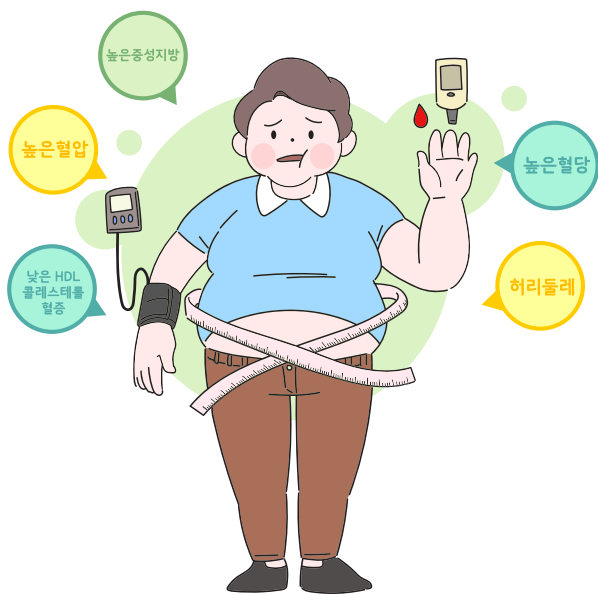
밤 야경에 보름달밤 이라 만개한 사쿠라꽃은 동화 찬란하네 초가집 창문에는 불빛이 새어 나오고 보이는 현에는 광채가 나누나 안마당 잔디밭은 가지런히 조화 롬네



(고향 자자가는새)

기러기때 나라는 모습 그림 갓구나 어딴가 하얗게 나르는데 나르는 모습 장관일세

## 강화군, 대사증후군 관리로 건강습관 올리GO! 대사증후군 잡GO!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심뇌혈관질환 등 각종 만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조기 발견을 위해 검진 및 1:1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보건소는 대사증후군 검사를 희망하는 모든 방문자에게 기초설문지 작성 후 혈압, 공복시 혈당, 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의 전문가가 개인별 특성에 따라 비만, 영양상담, 건강 운동 상담을 해주는 맞춤형 건강관리 상담도 병행한다.

대사증후군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인자가 더해져 발생하는 포괄적 질병으로 당뇨병, 고혈압, 만성

콩팥병,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높이고 각종 암 발생률 등과도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대사증후군이 있는 환자들을 조기 발견을 통해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 된 경우에는 일 년간 꾸준한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진행하는 ▲금연 ▲심뇌혈관 진료 ▲구강보건 ▲정신건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강화군보건소와 함께 만성질환의 주원인인 대사증후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군민이 건강한 한해를 보내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 서정진 기자

### 훈·훈·한·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목격하거나 경험하신 독자께서는 강화투데이로 투고 해주세요!

많은 분들께 따뜻함을 전달하여 함께 느끼고 함께 감동하며 숨은 곳에서 따뜻함을 전달하는 분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강화투데이 취재·광고 후원 ☎ 032.933.1080





2024년 갑진년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바라며  
 즐겁고 뜻깊은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강화군의회**  
 Ganghwa County Council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http://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